

혁신당, 호남서 첫 자치단체장 배출... 정치지형 변화 예고

담양군수 재선거 정철원 후보, 51.82% 득표로 당선 민주 이재종 48.17%... 내년 지방선거 치열 경쟁 전망

4·2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첫 자치단체장에 선출되면서 향후 호남 정치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호남을 '집토끼'로 생각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덧발'에서 조국혁신당에 첫 자치단체장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지역 국회의원, 시·군·구위원을 총동원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해 패배의 아픔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해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가 치러졌던 '10·16 재보궐' 선거에서도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고, 호남 민심의 변화가 감지됐다.

당시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이전 선거와 비교해 민주당 후보가 낙승을 거두지 못해 텃밭 민심의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평가였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점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 다자구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게 평가됐다.

결국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호남 민심은 조국혁신당을 택했고, '민주당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호남 내 선거 공식이 깨진 셈이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본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끝난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를 얻으며 48.1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고흥군 의원(나 선거구)에서도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54.07%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김동귀 후보(45.92%)에게 승리를 거뒀다.

전남에서 이번 4·2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 곳은 4곳. 공석인 군수 1자리와 시의원 1자리 군의원 2자리를 놓고 선거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선거구(담양군의원)를 제외한 3곳에서 고작 1곳에서만 당선인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호남 민심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당장 담양 민심은 앞서 치러진 8차례 지방동시선거에서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6번 선택했다. 무소속 후보의 당선은 2번이었으나, 제 2당 혹은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에서 담양 군민들의 선택은 민주당이 아니었다.

호남은 수십년간 민주당만 바라보고 밀어왔지만, 민주당이 호남에 돌려준 게 없다는 게 지역민들의 하소연이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담양군수 선거 패배 후 "담양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선거기간 동안 호남 시민들은 '매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했지만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호된 질책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호남출신 정치인들의 중앙 정치 영향력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4·2 재보궐선거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지난2일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정 후보의 당선으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게 됐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최고위원 중 광주·전남 지역구를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중앙 정치에서 목소리를 내는 현역 의원도 없다는 평가가 줄을 잇는다.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 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서 오락가락한 경선들과 무리한 컷오프로 탈당하거나 출마를 포기한 중량급 정치인들이 조국혁신당에 합류 가능성도 있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 승리로 호남 세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덧발 사수'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국혁신당도 호남에서 첫 자치단체장 배출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치열하게 민심을 파고 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담양군수 선거 결과는 윤석열 독재정권에 맞서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일 앞에서 싸웠던 조국혁신당에 대한 격려이자 정치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추상과 같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더욱 분골쇄신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 "민심 무겁게 받아들여"...야 "야권의 승리" 재·보궐 여야 반응

여야는 3일 4·2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각각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고, 민주당은 '사실상 야권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확보한 기초단체장 4곳(구로·아산·김천·거제) 가운데 김천에서만 승리했다. 민주당은 구로·아산·거제에서 승리했고, 조국혁신당은 담양에서 민주당을 제쳤다. 부산 교육감은 진보 진영 후보가 승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더욱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담양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정국 상황으로 지도부가

유세에 참여하지 못했고,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심의 준엄함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서 "주권자 국민은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에 패배한 것과 관련해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군민 마음 하나로 모아 지역 발전 힘"

정철원 담양군수 당선 소감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첫 자치단체장 배출에 성공했다. 조국혁신당은 담양군수를 새로 뽑는 '4·2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승리했다.

3일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담양군수가 51.82%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 후보에 3.65%포인트 뒤진 48.17%를 기록, 고배를 마셨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담양군수 선거 사상 첫 '당대당' 선거이면서, 텃밭 고수에 나선 민주당과 첫 자치단체장 배출에 나선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각축으로 주목받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6월 중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치러져, 호남 민심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었다.

투쟁을 열어본 결과 정철원 담양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신승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신장식 국회의원 등이 수차례 담양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끝에 사상 첫 자치

체장 배출에 성공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정치 철학인 '소통과 화합'을 기반으로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담양군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넓은 관경을 극복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무엇보다도 중단된 군정공백을 복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라면서 군정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군수는 이날 바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돌입했다. 같은 날 광양시 의원(나 선거구)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이돈경 후보가 63.04% 득표율로 진보당과 자유동맹당 후보를 앞서는 당선됐고, 고흥군 의원(나 선거구) 재선거는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54.07%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김동귀(45.92%) 후보를 제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 환경부 장관 만남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김원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2028년 개최 예정인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COP33 유치 외에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확대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등을 당부했다.

특히 김 지사는 COP33의 전남·경남 공동 유치에 앞서 여수를 개최도시로 우선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댐 주변 지역 주민 피해 시 적절한 보상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사업비를 상향해줄 것과 지방 하천인 화산 동복천의 체계적 물 관리 추진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일반 건축행위 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생활·경제활동 등에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국민 친화적인 환경정책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효율로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